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여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강연회 - 예수는 누구인가

## 성경의 예수, 그는 신화적 인물인가 (I)

- 역사적 예수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중심으로 -

최근 한국사회에는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SBS가 '예수는 신화다'라는 프리키와 갠디의 책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예수의 신성과 구주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신학공개강좌가 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성) 주최로 이종운 목사와 김영한 목사를 강사로 10월10일(금) 오후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에 순례자는 이종운 목사의 강의를 요약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순례자 주)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 I. 왜 아직도 역사적 예수가 문제인가?

- ① 종교의 특성인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를 거부한 자연주의(Naturalism) 합리주의, 역사비평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道成人身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거나 믿지 못함으로 아직도 예수의 실존을 거부하고 신화 또는 전설적 인물, 또는 작화 속의 인물, 성현 정도로 이해하려 한다.
- ② 2008년 6월 29일 - 7월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SBS가 프리키와 갠디의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종교간 화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방영했다지만 그 반대로 기독교의 절대진리와 가치를 훼손함으로 종교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가 異敎의 신화라 한다. 이집트의 오리시스 신화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를 유대의 영지주의가 수입하여 예수 신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 ③ 나사렛 예수에 대한(earthly Jesus) 성경의 증언을 부인하는 SBS의 이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다. 19c, 20c의 소위 역사비평주의학자들에 의해 이미 제기 되었다. 문제는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데서 출발한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가 어느 정도 서로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다.
- ④ 성경에서 역사학자들이 기대하듯이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될 수 있는 역사적 예수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윤색이 된 책이고, 초대교회의 선교적 관심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Bultmann은 역사적 예수는 찾을 수 없다고 확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화적, 전설적 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II. 창작된 신화인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 ① David Friedrich Straus(1808-1874)
  - i) 그는 예수의 기적을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했다. 그는 초자연주의를 배격하고 기적뿐 아니라 복음서의 모든 기술을 신화로 해석한다. 특히 복음서 기술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가령 예수는 왜 세례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받았는가?
  - ii) 그래서 그는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음서에 대한 typology(유형론적) 해석을 도입한다.
- 그가 제자를 부른 것은 엘리아가 엘리사를 부른 일을 모방한 창작이라 한다.

- 제자들이 귀신들린 소녀를 고치려다 실패한 것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죽은 소년을 고치려다 실패한 이야기의 모방으로 본다.(왕하 4:31)
-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사 7:14에서 베들레헴 별은 민 24:17의 발람의 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렙다 과부의 놀라운 기적에서 유형을 찾는다.
-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메시아적 활동을 구약 선지자들의 행동에 능가하는 것으로 기술하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기사를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예수의 부활은 신화적인 것이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iii) 스트라우스(Strauss)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복음서를

신화적 진술이라 할 때 추종자들에게 준 예수의 강한 인상에 자극되어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된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예수전(독일 국민을 위한 예수의 생애, 1864)에서는 예수의 생애를 소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의해서 무의식 중에 창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속임수라 했다. 그는 두 번째 예수전에서 예수를 단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평가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는 도덕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한 인간의 죽음이라 한다.

- ② 부르노 바우어(Bruno Bauer, 1809-1882)는 예수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고 예수전은 2c 말쯤에 희랍-로마 세계에서 생겨난 하나의 문화적 혹은 종교적 관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③ 윌리엄 브레데(William Wrede, 1859-1907)는 예수의 메시아성은 초대교회의 산물이지 예수 자신은 자신을 메시아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마가복음은 사실상 역사서라기보다 수준 높은 신화적 저서라 한다. "메시아 비밀", 즉 부활 후 교회가 산출한 사상이 마가복음이다.
- ④ 빌리 맑스(Willie Marxen), 교회의 책으로의 신약?!!(The NT as the Church's Book?!!)
  - Straus, Bauer, Wrede는 복음서를 제자 혹은 추종자들에 의한 신화적 창작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구약 성경을 역사속에서 신의 사역을 목격함(또는 계시로 믿은) 사람들의 증언 즉 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세속적인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로서의 예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의 단초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과 약속, 곧 언약이다. 신구약 성경은 이 언약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는 인간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신격화한 창작된 신화가 아니고 구체적인 한 분 하나님 여호와와 인간과 맺은 언약과 성취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 기독교의 비신화화를 부르짖는 Bultmann조차도 신화란 저 세상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신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피안적인 것을 차안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표현방식이라 했다.
  - 따라서 Straus, Bauer, Wrede의 복음서의 유형론적 신화적 표현 혹은 복음서의 신화적 창작설 등은 복음서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 만든 신화의 개념을 자기 이해의 범주에 넣고 곡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주 계속)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사명자 대회 은혜롭게 진행되다

## 태신자 카드 작성하여 교회 제출토록

사명자 대회가 눈물의 기도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와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우리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태신자를 작성하여, 가족, 친지,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

해 마치 태아를 잉태하여 10달 동안 온 정성과 기도로 양육하고 출산하는 어머니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명자대회에 온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제10회 화요정오음악회

## 14일(화) 정오 - 오보에와 트럼펫,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시작으로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열린프로그램- 화요정오 음악회가 14일(화) 정오 본당에서 열린다.

화요정오음악회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하여 매년 2회(봄, 가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봄 시즌에는 오르간 독주로 가을 시즌에는 오르간과 여러 종류의 악기가 어우러지는 실내악 연주회

로 열리고 있다. 이번 시즌은 14일(화) 정오에 오보에와 트럼펫,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를 시작으로 6주간 계속된다. 관람은 3층에서 하면 된다. 성도와 이웃주민이 함께 하는 전도와 여가선용의 장으로 선용하도록 기도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프로그램	연주자
10월 14일	오보에와 트럼펫,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Oboe, Trumpet and Organ)	임소연(오보에) 김혜정(트럼펫) 소정화(오르간)
10월 21일	첼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Cello and Organ)	김시내(첼로) 한지훈(오르간, 연세대 성결대 강사)
10월 28일	플루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Flute and Organ)	유카 아이야(플루트) 채진수(오르간, 성결대학교 교수)
11월 4일	오르간 듀오 연주회 (Concert for Organ Duo)	강혜미(오르간) 이성심(오르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11일	기타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Guitar and Organ)	김정열(클래식 기타), 오자경(오르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11월 18일	아쟁과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Concert for Ajaing and Organ)	김성훈(아쟁) 배문경(아쟁) 강민정(오르간,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 2008 성경 암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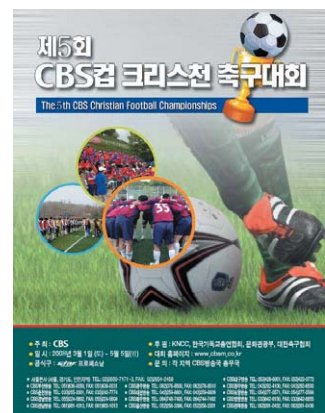
예선: 10월 19일(주)  
본선: 10월 24일(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 년 간 수시로 읽고 암송하던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다음 주일 교회학교별로 실시된다.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 체육인 선교회 창립된다

등산, 족구, 축구, 검도 등



우리 교회는 나날이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위원회(위원장 홍성주 장로) 산하에 체육인 선교

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체육인 선교회는 평소 성도들이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 동호회(등산, 족구, 축구, 검도 등)를 조직하여 모임을 정례화하고 성도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같은 사회인 동호회(클럽)등과 교류를 통해 전도도 하게 된다.

이에 제일먼저 축구선교팀(가칭)이 창단될 예정이다. 축구선교팀은 '제6회 CBS 컵 축구대회' 참가를 첫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2009년) 3월 "축구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표어로 열리며 축구사상 전국 최대 규모(288개팀 이상)의 축구 축제이다.

축구선교팀은 대회참여 연령제한에 따라 50대 5명, 40대 20명, 30대 20명, 20대 10명 이상을 각각 모집한다. 주위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 참여시켜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도록 기도하고 있다. 축구팀에 참여 또는 소개를 원하시는 성도는 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천국시민 양성

#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진달 집사(장년부)



금년에도 10월에 들어 서면서 사명자 대회와 성경암송 등 갖가지 행사들로 성령 충만한 서울교회를 바라보며,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암송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초, 중, 고 시절 학교 공부를 마치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절에 가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서 늘 불교에서 벗어나 해방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침 아내의 결혼 조건이 믿음을 갖는 것이었고 저는 쉽게 Yes! 라는 대답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후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로 했던 약속들은 제 마음에서 사라져갔고 세상일의 쾌락을 쫓으며 10여 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오더군요. 이 때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죄악을 일삼았던 일들이 헛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암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고 용기가 나질 않아 '나는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였지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2002년 9월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 중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제야 힘을 얻어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매년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암송을 하는 사이 알게 모르게 말씀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며 끝보다도 달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해야겠다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올해는 베드로전서 암송대회를 참여하는 모든 이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 손신일 선교사

# 체코에 복음의 횡불을...

서울교회 성도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올 11월 23일에 파송 될 선교사 손신일입니다. 사역을 함께 하는 아내 민매라와 아울러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합니다. '하필이면 일본이 아닌 체코에서 일본인선교냐고' 의아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선교가 어려운 가운데,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사실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는 2,000명 정도의 일본인이 거주합니다. 그 중에서 주로 유학생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현지의 한인 교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저희 선교지는 유럽의 한 가운데 있는 나라 체코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으로 아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18년에 독립하여, 제2차 대전 후에는 소련의 압력으로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1989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1993년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라의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약간 작고,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산주의 정권 아래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 독실한 신앙인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체코의 개혁교회는 안 후스라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를 자랑하는데, 현재는 소수파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면,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일이 일본선교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하에서 체코 사람, 한국사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이룬다는 비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물론 체코의 복음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프라하에 거주하는 일본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2세 입니다. 민족적 정체성에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프라하에서 일본인 선교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아내는 음악 전공자로서 선교 활동의 지경을 넓혀 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선교가 항상 서울교회의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 기도학교를 마치고

# 기도자로서의 사명감

윤현미 성도(13교구)

제가 속한 13-14 다락방식구들 7명의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학교에 등록해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기뻐서, 저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기도생활을 미루거나 게을리 하는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동안, 다음 주간에 배울 기도가 기다려진답니다.

2과에서 기도의 유형 중 화살 기도에 대해서 배운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살아서 숨 쉬는 때 순간 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속으로 짧지만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

다. 아침 시간 집을 나서는 자녀들에게도 정죄와 훈계나 잔소리하던 제가 '항상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제 자신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더디게 응답되거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영혼의 호흡을 무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기도자로서의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다음 3기 기도학교에 주변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 아침 시간 집을 나서는 자녀들에게도 정죄와 훈계나 잔소리하던 제가 '항상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제 자신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더디게 응답되거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영혼의 호흡을 무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기도자로서의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다음 3기 기도학교에 주변 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영준 장로 (당회서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움 받게 하시고, 선교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 위기 앞에 직면하여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했던 노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를 들고 험난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정착되어서 불안한 국내정세가 수습되어 정체성과 질서가 회복되고, 믿음의 용장들이 큰소리로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산주의와 아합하지 않으며, 안보와 영토와 주권이 든든히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큰 복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기쁨진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경제가 견잡을 수 없는 공황으로 빠져드는 이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음을 믿사오니, 선교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 민족과 국가를 바로 이끌며 세계로 비상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규정 목사**

최근 젊은 연예인들의 자살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4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최근 목숨을 끊은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과 함께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을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단순히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창조주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며 반항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으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리의 생명도 삶도 존중하고 기꺼이 돌보고 가꾸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삶. 생명.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요 사명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고 또 사망에서 부활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은 감옥에 갇히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이 오늘날 살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무리 삶과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의 순간이 온다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고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위기와 고난도 변화되어 가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시119:50). 자살은 삶의 포기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강력한 신앙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요14: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으로 무거운 짐에 눌려도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삶의 평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 미리암 여성합창단의 찬양예배로 드러진다.

교회 선교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합창단은 이미 지난 10월 10일(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행사에서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의 특별 순서를 가졌다.

오늘 저녁에는 ‘평화의 기도’(성 프랜시스 기도 중에서)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에 김정희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피아노에 김성희 선생, 플루트에 광기승 학생이 단원과 함께 찬양 드린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3일(월) 로잔 2010 제3차 세계대회 설명회를 갖는다. 14일(화) 복경 장애인 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 초청 한기총 주최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16일(목)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 모임을 주관한다.

■ 이갑진 장로 이재을 선교사 10/29-11/2 동남아시아 지역 기독교인대회 참석(인도네시아 발리)

■ 특남: (12교구) 김희상 신경미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10.12) 모세선교회(10.19)

■ 금주의 식사 : 강천일, 강정자, 강성일, 강정희 성도 (어머니 윤순탄 권사 장례를 마치고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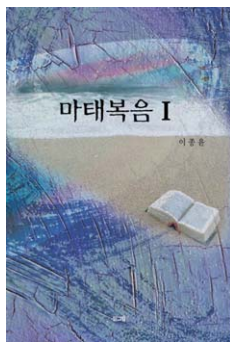
**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 교체 - 오신옥 집사 임명 -**



찬양예배와 수요2부 예배에서 반주를 담당하던 이순재 선생이 찬양예배 반주를 사임함에 따라 오신옥 집사를 후임 찬양예배 반주자로 임명하였다. 오신옥 집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주일 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로 봉

사한 바 있다.

**■ 신간안내 ■**



이종윤 목사의 마태복음 1권(1장-17장)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복음서 중의 첫 번째 책, 가장 긴 책, 가장 유대적이고 가장 전도적인 책, 가장 권위적인 책인 마태복음은 왕과 그의 나라를 주제로 한 책이다.

필그림 출판사가 출판한 이 책의 총판은 생명의 말씀사가 맡고 가격은 권당 19,000원이다. (국판 640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사명자대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2.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